한심한 원안위, 방사능 외부 유출 파악조차 못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원전 방사능 물질 유출…구멍난 원전 관리

원전사업 인·허가권 쥔 규제기관 제역할 못해

유출 경로·안전성 여부 의문 속 주민들 '불안'

한빛(영광)원전의 방사능 물질 유출 사고는 원자력 안전을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원전이 안전성을 담보로 하는 핵심 시설임에도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고 사흘이 넘도록 방사능이 유출된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못하는 등 원전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보여주지 못했다.

한국수력원자력측도 방사능 유출이라는 최악의 사고를 내고도 숨기기에만 급급한 폐쇄성을 드러내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심한' 원자력안전위원회=21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전측에 따르면 원안위는 지난 17일 조사팀(4명)을 꾸려 문제가 발생한 한빛원전 3호기 안전성과 고장경위 파악에 나섰지만 21일까지도 방사능 물질이 외부 환경에 유출(연간허용치의 0.05%, 원전 측 주장)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세관이 파손된 증기발생기가 아닌 멀쩡한 증기발생기를 수습하려 10시간 가까이 원전 측이 허둥지둥한 사실조차 밝혀내지 못했다.

원안위는 원자력 사업 전반에 인·허가권을 쥐고 안전성을 위한 심사와 검사를 수행하는 독립된 규제기관이다. 이 때문에 한빛원전 측의 부실 점검, 과실, 방사능의 외부 환경 노출 등 주요 내용마저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무용론이 제기되는 형편이다.

법으로 보장된 막강한 권한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는 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원전을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음에도 임무를 소홀히 한 탓에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전 전반에 걸쳐 비리와 무능, 실수가 만연해 국민을 '원전 공포'에 떨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구멍난 원전안전…위험성과 유출경로는?=사고 발생 5일째인 21일, 원안위와 한빛원전 측은 유출된 방사능 총량과 경로, 위해성 여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을 통한 방사능 유출 경로는 유추할 수 있다. 원자로를 통과하면서 방사능 물질을 갖고서 300도 이상의 고온으로 데워진 냉각재(물)는 세관(가는 전열관)에서 엄청난 기압(150기압)을 받아 액체 상태를 유지하면서 증기발생기로 이동한다.

이동한 냉각재는 증기발생기 2차측에 있던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와 기압을 유지한 또다른 냉각재(물)를 증기로 변하게 만들고 여전히 관을 타고 원자로를 향해 달려가는 순환을 반복한다.

문제는 세관이 터지면서 방사능 물질을 포함한 냉각재가 증기 발생기 2차측으로 마구 섞이면서 안전하게 차단시설이 갖춰진 1차 계통이 아닌 외부에 노출되기 쉬운 2차 계통으로 오염된 냉각제의 순환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오염된 냉각제가 증기로 변해 격납용기 밖에 있어 차단이 완벽하지 않은 터빈과 복수기 등을 순환하게 된 것이다.

원자력 전문가들(원자력공학및방사화학 박사·기계공학 기술사)과 한빛원전 측에 따르면 ▲절대 유출되서는 안되는 방사능물질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점 ▲법적 허용기준치는 밑돈다면서도 정확한 유출 양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마저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형편이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외부 유출 경로는 터빈에서 불필요한 기체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외부환경으로 일부가 새나갔거나 부실한 관을 타고 빠져나왔을 것"이라면서 "원전 측은 감추려고만 하고 원안위마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유출량이나 외부 환경에 대한 위험성 자체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새끼반달곰 3마리 다시 지리산으로

올해 지리산에서 태어난 새끼 반달가슴곰 암컷 세 마리가 지리산 자연의 품으로 되돌아갔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단 종복원기술원이 관리하던 새끼 반달가슴곰 암컷 세 마리를 21일 지리산에 방사했다.

방사된 새끼 반달가슴곰 세 마리는 올해 초 야생에서 태어났다. 한 마리는 지난 3월 어미곰이 양육을 포기해 회수됐으며 다른 두마리는 벽소령대피소에서 먹이를 찾아 등산객에게 접근했던 어미곰과 함께 7월에 회수됐다.

지난 3월 어미곰이 양육을 포기한 새끼곰은 모두 두 마리인데, 한 마리는 자연적응 과정 중 다쳐 이번에 한 마리만 방사하게 됐다.

방사는 새끼 반달가슴곰들의 자연적응 정도를 고려해 두 군데서 다른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방사로 지리산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은 모두 34마리로 늘어났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윤장현 광주시장 선거 도운 유권자단체 대표 영장 기각

광주지법 영장전담 권태형 부장판사는 21일 검찰이 공직선거법(사전선거운동 등) 위반 혐의로 청구한 광주 지역 모 유권자단체 대표 이모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윤 시장과 지난해 10월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를 결성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3월까지 수차례 회의를 열어 선거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검찰이 구속영장이 발부 이후 추가 관련자들에 대해 진행하려던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젠 뼛조각이라도 찾았으면" 통곡의 바다 된 '세월호 법정'

'진실'을 밝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한번 더 승무원들에게 호소해보겠다는 간절함 때문일까.

21일 열린 이준석(68) 세월호 선장 등 선박직 승무원 15명에 대한 28번째 형사 재판은 첫 재판과 같은 가족들의 흐느낌으로 가득했다. 이날 재판은 오는 27일 예정된 검찰의 구형에 앞서 열리는 마지막 재판으로 피해자 가족들의 하소연을 듣는 자리이기도 했다.

20차례가 넘게 진행되는 동안 '개근생' 명단에 포함됐던 단원고 학생

27일 구형 앞두고 마지막 증언
영상 방영되자 온통 울음바다
"진실 말해달라" 분노의 호소도

아빠·엄마를 비롯, 안산 지원을 드나들었던 유가족들까지 광주지법 법정 100여석을 채웠다.

증언대에 나선 단원고 학생 부모, 실종된 교사 아내, 생존자, 생존 학생의 가족 등 16명의 떨리는 목소리는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

희생자들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이 법정 모니터를 통해 방영되면서 숨죽인 흐느낌은 통곡으로 바뀌었다.

영상은 여학생 6명이 노래를 부르며 손잡고 발랄하게 걷는 모습으로 시작했다. 사고 전 배 안에서 학생들이 찍은 모습, 이준석 선장이 탈출하는 모습, "퇴선방송을 지시했다"는 선장의 법정 진술도 담겨 있었다.

통곡은 어느새 분노로 바뀌어 고성과 뒤섞였다.

단원고 교사인 남편의 시신을 여태껏 찾지 못했다는 민모씨는 "팽목항에 시신이 들어올 때마다 남편이 아니기를 바랐지만 며칠이 지나니 남편이기를 바라게 됐다"고 울먹였다. "이제는 뼛조각이라도 찾아서 어린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가는 마지막 모습이라도 보여주고 싶다"며 흐느끼자 다른 가족들도 함께 울었다.

민씨는 "팔순 가까운 시어머니는 아직 아들의 죽음을 모르고 9살, 7살 두 아이는 '너네 아빠 죽었느냐'고 묻는 친구들 질문에 고민한다"고도 했다. "맞잡은 손의 감촉이 아직 남아 있는데도 남편은 옆에 없고, 주변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행복해했던 나는 이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과 얼굴 마주치는 게 무서워 고개들고 길을 걸을 수도 없다"고도 했다.

승무원들에게 "진실을 말해달라"는 호소와 "법에서 정한 최고형을 선고해달라", "우리가 흘리는 눈물만 보지 말고 배에서 아이들이 흘린 눈물을 봐달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선원들이 죗값을 치르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담당 재판부도 "영상을 미리 봤더니 너무 슬펐다. 재판을 마친다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며 재판을 마쳤다.

숨진 단원고 2학년 8반 학생의 부모가 만든 "우린 어른이 되고 싶었지만, 밤하늘 반짝이는 별이 되었습니다."라는 마지막 영상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법정을 울음바다로 만들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저러다 사고날라…안전불감 여전 21일 정오께 광주 북구 문흥고가 앞. 공중에 배선된 전기선을 정비하는 고가차량이 바구니에 직원을 태운 채 차선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작업하고 있다. 차량 전방에 안전요원이 있어 다른 차량들을 유도하고 있으나 흔들거리는 바구니 안에서 몸의 중심을 잡고 있는 작업자가 불안하기만 하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금 대폭 오른다

복지부 수가체계 개선 방안

앞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큰 폭으로 오른다. 또 요양병원 수가 개편작업도 이뤄진다.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방안, 하반기 수가체계 개선방안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본인부담비율은 현재 20%에서 입원기간에 따라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올라간다.

현재 입원료는 16일 이상 입원할 때 90%, 31일 이상은 85%씩 차감되지만, 본인부담률은 변동이 없다. 따라서 장기입원하면 본인부담금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복지부 추진방안을 적용하면 상급종합병원 6인실 기준으로 환자가 1~15일 입원했을 때 본인부담금은 1만60원, 16~30일은 1만3천580원, 31일 이후는 1만7천100원으로 오른다. /연합뉴스

"나 조폭이야" 카드 빌려 술값 탕진

쌍나팔

○…지인에게 소개받은 여성으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로 술을 마신 뒤 돈을 갚지 않은 30대 남성이 경찰서행.

○…21일 무안경찰에 따르면 박모(38)씨는 지난 8월께 소개팅에서 만난 L모(여·41)씨에게 "아웃렛을 운영하는 재력가"라며 접근, 신용카드를 빌려가 유흥주점에서 160만원 상당을 사용해놓고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

○…박씨는 돈을 요구하는 L씨에게 "내가 조폭 행동대장 출신이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는데, 담당 경찰은 "주변 사람들에게 조폭행세를 하면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려왔다"며 구속수사 할 방침.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1계>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4타경 8446	1	남구 봉선동 1078 봉선더숲2단지 202동 2층 301호 187.2866㎡	아파트	600,000,000 600,000,000	
2014타경 11275	1	광산구 우산로95번길 60, 101동 1층 102호 [우산동,대광로제비앙] 84.8724㎡	아파트	170,000,000 170,000,000	
2014타경 13158	1	광산구 첨단중앙로181번길 88-21, 108동 8층 801호 [월계동,대우아파트] 133.820㎡	아파트	227,000,000 227,000,000	
2014타경 13455	1	북구 매곡로 92, 101동 2층 211호 84.85㎡	아파트	120,000,000 120,000,000	
2014타경 14892	1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230 유창허니문맨션 2차아파트 102동 1층 101호 59.73㎡	아파트	83,000,000 83,000,000	현점유자정정엽은 소유자의모임
2014타경 16065	1	남구 광복마을7길 31, 1층 102호 [주월동,한양아파트] 71.25㎡	아파트	103,000,000 103,000,000	
2014타경 16676	1	남구 봉선동 606 봉선1차남양휴튼 102동 3층 302호 158.6392㎡	아파트	451,000,000 451,000,000	
2014타경 16997	1	북구 천지인로 59-1, 13층 1308호 [오치동,공간] 59.63㎡	아파트	90,000,000 90,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3타경 31968	1	나주시 대기동 199-2 188㎡	대	22,930,140 22,930,140	일괄매각.수목포함.2013타경31975[병합]
		동소 198 192㎡	대		
		동소198 92.56㎡ 창고13.22㎡ 물치29.75㎡	단독주택		
		동소 200 139㎡	대		
2014타경 8309	1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231-5 117㎡	대	57,649,480 57,649,480	일괄매각
		담양군 담양읍 객사4길 29-1 1층68.82㎡ 2층57.70㎡ 부속건물 변소1.0㎡	점포및주택		
2014타경 15789	1	광산구 수완동 1496 330㎡	대	1,003,723,600 1,003,723,600	일괄매각
		광산구 수완로11번안길 42 지하1층262.73㎡ 1층196.95㎡ 2층187.95㎡ 3층196.95㎡	단독주택		
2014타경 16553	1	서구 양동 428-17 92㎡	대	50,871,000 50,871,0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서구 발산로 43-11 1층45.76㎡ 2층15.36㎡ 제시외 욕실및화장실 7.5㎡	단독주택		
[기타]					
2014타경 3915	1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 379 2084㎡ 제시외 캐노피 등 104㎡.기계기구목록참조	대	783,076,800 783,076,8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기계기구목록중일부소재
		나주시왕곡면예향로3677 1호1~2층각90.0㎡	사무실등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2014타경 3915	1	나주시왕곡면장산리379 2호 1~2층각82.8㎡	화장실등		불명.목록2,3용도 2층종업원속소,목록3용도1층화장실,휴게실
		동소 380 177㎡	도로		
		동소 393-1 121㎡	답		
		동소 394-11 745㎡	대		
		동소 729-7 145㎡	잡종지		
2014타경 13011 2014타경 18825 [중복]	1	광산구 장덕동 990-11 1459.1㎡	공장용지	3,879,946,910 3,879,946,910	일괄매각.기계기구목록포함
		동소 990-12 2948.4㎡	공장용지		
		광산구 하남산단3번로 90 [장덕동,가동] 1층1150.76㎡ 2층1086.52㎡ 3층539.17㎡ 지층1424.88㎡ 제시외 기계기구 17	공장		
		동소 90 [장덕동,나동] 1~2층각731.28㎡	공장		
[대지/임야/전답]					
2013타경 29897	1	화순군 동복면 구암리 928-6 1742.5㎡	답	24,395,000 24,395,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3434	1	광산구 선암동 414-4 834㎡ [분묘소재,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	전	141,780,000 141,78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13318	1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964 2453.7㎡	답	85,879,500 85,879,5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14618	1	담양군 대덕면 운암리 661 2076㎡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24,912,000 24,912,000	2014타경18474[중복]
2014타경 15604	1	나주시 공산면 상방리 379 764㎡ [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	대	10,696,000 10,696,000	매각외제시외건물있음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3타경 21367	1	남구 봉선동 494 솔모렉스케이원 2층 211호 160.23㎡ [건축물대장상상정94.23㎡ 와사무실66㎡ 로변경]	근린시설	370,510,000 370,510,000	대지권등기없음
2013타경 32664	1	북구 무등로180번길 12, 11층 1138호 43.75㎡	근린시설	43,000,000 43,000,000	2014타경22213[중복]
2014타경 8682	1	북구 오룡동 1110-34 애플지식센타 그린동 비동 6호 복수층 1층46.98㎡ 2층60.9㎡	근린시설	127,000,000 127,000,000	
2014타경 8835	1	영광군 영산면 천년로 15-10, 1동 1층 102호 [명진명가] 56.4923㎡	근린시설	88,000,000 88,000,000	
	2	동소 1층 103호 [명진명가] 56.4923㎡	근린시설	88,000,000 88,000,000	
	3	동소 2층 201호 [명진명가] 56.4923㎡	근린시설	88,000,000 88,000,000	
	4	동소 2층 203호 [명진명가] 56.4923㎡	근린시설	88,000,000 88,000,000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14타경 9654	1	남구 대남대로308번길 13, 4층 404호 [월산동,광전파크] 48.7645㎡	다세대	110,000,000 110,000,000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4. 11. 6.[목]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4. 11. 13.[목]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인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4. 10. 22.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영복